

통도사 등 전국 사찰 하안거 해제 법회



8월 24일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하안거 해제 후 수좌스님들이 걸망을 메고 만행을 나서고 있다.

근본 살피는 길을 걸어야 한다

전국 100여 선원의 2500여 운수남자들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수행 열기로 하안거를 마치고 운수행각에 나섰다.

경인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24일, 전국 사찰과 함께 불지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하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해제법회에는 보광선원 47명, 극락암 호국선원 28명, 서운암 무위선원 21명, 조계암 대적선원 7명, 석남사 정수선원 49명,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39명 등과 재가자 안거 도량인 보살선원 67명 등 방부 들었던 400여 명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장 원명 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에서 “범부와 성인을 뛰어넘는 근본 도리를 밝혀보려고 모두들 한 뿔을 두문 불출하고 애를 썼다. 나뭇 약간의 성취도 있었지만 과연 깊이 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공부가 조금 수월해지고 진보한 듯해도 그것은 아직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혼신을 다해 깊숙이 살펴서 넓고 큰 바다가 돼야지 얇은 물처럼 소리만 요란해서는 안된다. 남자는 걸음걸음이 근본을 살피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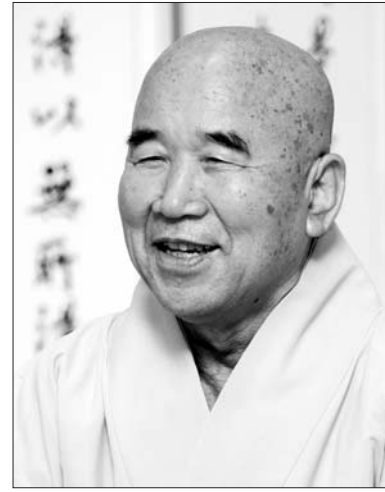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두 스님이 웃은 까닭은?”

경인년 하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8월 23일, 영축총림 통도사에는 늦여름이 한창이었다.

기자들도 방장 원명 스님(사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스님은 수차례 고사 끝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고 나서야 만남을 허락했다.

“2007년 방장 취임 당시에도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속세를 버리고 산중에 와 공부하는데 세속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뭐죠?’ 하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 스님이 거듭했다.

“방장스님, 세속 사람들이 스님을 만나 뵈실 수 없게 귀찮게 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봉 스님의 상좌인 원명 스님은 2007년 4월 영축총림 방장에 취임했다. 초대 방장 월하 스님이 2003년 12월 입적한 뒤 4년만의 일이었다. 원명 스님은 방장 취임 당시는 물론 그동안도 언론과의 접촉을 크게 꺼려왔다. 안거 결제·해제마다 내리는 법어가 대중이 스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

원명 스님이 말을 이었다.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궁에 와서 절하고 가고, 주지스님 만나고 가면 되는 곳이지, 내게까지 찾아올 이유는 없습

“백양사 고불총림 운영은 위반”

의연 스님, 법규위에 총림 지정 해제 청구

중앙종회의원 의연 스님(성남 장경사)은 8월 26일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고불총림의 총림 지위를 묻는 서류를 접수했다.

스님은 청구서에서 1996년 고불총림을 지정된 중앙종회의 결의는 서울 스님(前 백양사 방장·2003년 입적)이 백양사에 주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울 스님이 입적한 지금은 총림 지위를 재확인돼야 한다는 등의 취지를 구했다. 또, 총림이 해제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권리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림의 경우 주지를 방장이 지명하기 때문이다. 총림이 아닌 일반 교구본사는 산중총회를 통해 주지를 선출한다.

총림 지정 해제 청구의 배경에는 방장 수산 스님과 지선 스님 측의 10여 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스님의 갈등은 수년 전 백양사 성보박물관장인 지선 스님 측 00 스님이 행화를 전시키면서 증명을 방장이 아닌 지선 스님으로 표기한 것을 비롯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또, 수산 스님의 방장 취임 후 임회에 서 주지를 추대하던 관례를 깨고 주지

의연이 일방적으로 임회에 통보되면서 백양사 내 중진스님들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총림 해제 청구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선 스님이 최근 종무소로부터 백양사내 노석산방에서 퇴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연 스님은 “노석산방에서 연등 권선을 했다는 것은 총림 지위와는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부처님오신 날이라 해서 사제가 불전에 마치 올린 것을 트집 잡아 지선 스님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이번 청구건은 단지 고불총림 백양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산 스님 상좌인 민당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노석산방에서 연등 권선했던 증거가 있다”며 “방장스님은 산중총회에서 지선 스님을 퇴거시키자는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2003년 중앙종회가 현 방장 스님을 인준함과 동시에 1996년 당시의 조건부 인준 조건은 소멸된 것”이라 반박했다.

조동섭 기자

■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영농법인 설립 생산불교 구현

영축총림 통도사 대웅전 뒤편에는 신라시대 조성된 연못이 있다. 구룡지이다.

통도사를 수호하는 용이 산다는 연못이지만 지금은 용 대신 내방객들이 던진 동전만이 가득하다. 이곳에 모이는 동전은 한해 얼마일까?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한해 구룡지에서 걷히는 동전만 2000여 만원에 이른다. 초등학교 무료급식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8월 24일 경인년 하안거 해제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였다.

정우 스님이 통도사 주지에 취임한

2007년 이후 통도사는 많이 바뀌었다. 금강계단 사리탑만 해도 1년에 3회(음력 3월 보살계 수계법회, 4월 부처님오신날, 9월 개산제) 개방되던 곳이 스님이 주지가 되고 나서 24시간 개방됐다.

낙산사 화재가 있는 후에는 화마로부터 문화재 등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방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도량 인근 나무들이 보기 좋게 간벌 됐고, 소나무며 차나무 연꽃 등이 방치되던 경내지 곳곳에 심어졌다. 소방수 확보를 위한 연못도 조성됐다. 1000여 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식당이 세

워졌다. 나후된 화장실 8곳도 정비됐다. 절을 타리는 걸려졌고 도량 입구 계곡에는 분수가 세워졌다. (이 날도 통도사 계곡에는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는 조선 후기 이곳에 주석하던 성해 스님의 두 제자, 구하·경봉 스님이 일구고 구하 스님의 상좌인 월하 스님과 경봉 스님 상좌인 벽안 스님으로 법맥이 이어지고 가풍이 전해져왔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월하 스님의 손상좌이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는 1400년간 농사를 지으며 <백장정규>의 선농일치를 실천해 온 도량이다”라며 “영축총림의 가풍을 살려 영농법인을 설립해 차 등을 생산하는 등 생산불교에 초점을 맞춰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도사 경내지 10만평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해 1000여 가마이다. 스님은 “벼농사를 짓다보면 농비가 더 든다”면서도 “쌀

농사는 지어야 한다. 사중에서 남는 쌀은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안거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사판승이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행은 참선·염불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수행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근본을 잃지 않으며 자기 모습을 찾아지키는 그 모습입니다. 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통도사가 실천해 온 자비나눔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다.

통도사는 20여 년 전 월하 스님이 세운 복지재단을 기반으로 16개 시설에서 400여 근무자가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통도사 부모밭에는 옛부도가 50기 있습니다. 1400여 년 통도사 역사로 비취볼 때 30년마다 통도사와 한국불교를 이끌 인물이 났다는 것이지요. 한국불교의 중심인 물을 배출해 온 도량에 걸맞은 노력을 앞으로도 쉬지 않겠습니다.” 조동섭 기자

(제)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를 위한 시각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국태민안 및 국운융창 기원 영산대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대한불교선각종 모후산 도원사 4주년 기념법회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광주·전남 불교사암연합회
- 주 최 : 모후산 도원사 불행위원회·신도회
- 후 원 : 화순군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선각종전국교구본사, 선각종중앙포교원 (완도수양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한국디자인(기획사), BBS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호남일보
- 초청가수 : 일운스님(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50호 영산 보존회장), 법능스님, 김상배, 현진우, 우연히, 정현, 7080뮤지컬(경규와 뮤직), 통기타(주권기), 신명화, 해랑
- 일 시 : 2010년 9월 11일(토) 오전 9시 영산대재 / 오후 4시 산사음악회 및 신도노래자랑
- 장 소 :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
- 문의전화 : 061)372-1047, 061)433-2233 총무원 / 신도회장 011-636-4110

日用齋儀式 受講生 모집

조계종 어산·범패·작법 보존회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 동주원명스님을 모시고 안채비(일용 권공·법당 내 의식)를 중심으로 한 불전예식 및 재 의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에 불교 의식에 관심 있는 學僧들을 모집합니다.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2010년 9월 9일(목요일) 오후 2시 **홍원사** 교육관

교육내용

1. 이론 ① 안채비 중심의 일용 권공 의식 ② 한국 불교 무용 ③ 한국불교 전통 재 의식 ④ 한국불교 의식의 보존 방향에 관한 제안	2. 실기 ① 일용 권공 의식의 진행을 위한 소리 ② 바라무·나비무 ③ 法具연주(태징·북·목탁·요령)
-----------------------------------------------------------------------------------------------	--------------------------------------------------------------------------

■ 교 재 : 승가의 법(저자: 동주 원명)
 ■ 교육기간 : 1년 ■ 특 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 교육일시 : 매주 1~2회 (강의시간은 면접 당일 날 정함)

주관: 조계종 어산·범패·작법·보존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홍원사** 02) 2658-3100